



화순경찰, 교통사망사고 현장 합동 점검

화순경찰은 17일 백용리에서 발생한 교통사망사고 현장에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사진)

유관기관은 광주국도관리사무소, 도로교통공단, 화순군과 협력단체인 모범운전자회와 녹색어머니회, 마을 이장 등이다.

이번 교통사망사고 현장 합동점검은 치안파트너와 함께하는 참여형 교통안전 활동의 일환이다.

유관기관과 교통사고 원인 분석 외에 △도로 시설물 등을 심도있게 진단 △주변 교통환경 요인 점검 △그리고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히 정비할 방침이다.

장승명 화순경찰서장은 “이번 합동점검 장소 이외에도 도로 시설 취약구간을 지속 파악하여 주민 중심의 교통안전 환경 체계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업 및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중 기자**



익산국도청, 해상교량 화재사고 대응훈련

익산지방국도관리청은 지난 16일 국도4호선 새만금동진대교에서 전기차 교통사고 화재로 인한 케이블 손상 상황을 가정해 해상교량 재난대응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

훈련에는 익산국도청과 전주국도관리사무소, 국토안전관리원, 그리고 경찰과 소방서, 해당 자치단체 등 유관기관 등이 함께 참여해 기관별 대응 상황 등을 집중 점검했다.

훈련은 동진대교를 운행하던 전기차가 중앙분리대를 충돌하면서 운전자가 다치고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며, 인근 사장교 케이블에도 손상이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해 시행했다.

안경호 익산국도청장은 “이번 훈련은 개정된 ‘해상교량 재난대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이 잘 구현되는지 점검하는 기회였다”면서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해 각종 재난 발생 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광주신세계,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장 표창

단체헌혈, 총38회 1110명 동참

광주신세계가 헌혈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아 대한적십자사로부터 광주전남혈액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지난 2005년부터 임직원 단체헌혈을 진행 중인 광주신세계는 앞으로도 혈액나눔에 동참해 나갈 예정이다. (사진)

17일 광주신세계에 따르면 광주 동구 헌혈의 집 총장로센터에서는 대한적십자사 창립 119주년 기념행사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김동수 광주전남혈액원 원장과 김성춘 광주신세계 사원 대표 등이 참석했다. 대한적십자사는 창립 119주년을 기념해 누적 헌혈 인원이 500인 이상인 단체나 70회 이상 헌혈한 개인 중 추천을 통해 표창 대상을 선정했다.

광주신세계는 헌혈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아 대한적십자사 표창을 수상하게 돼 영광스럽다”며 “지역민이 보내주시는 관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헌혈 등 지역에 도움이 되는 광주신세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나다운 기자**

이동했다. 지난 2022년부터는 코로나로 헌혈 참여가 저조해지자 매년 상·하반기 단체헌혈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헌혈 문화 확산을 위해 일반 고객들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한적십자사에서 제공하는 기념품과 별도로 궁전제과 이용권(1만원)을 증정한다.

광주신세계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헌혈에 동참하는 데에는 사내조직인 한가족 협회회의 공로도 컸다. 사원들의 복리후생 개선을 목표로 만들어진 한가족 협회회는 업무환경 개선을 포함해 연말 소외 아동 선물 배송, 폐현수막 업사이클링 봉사 등 개인들이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하며 구성원들의 역량 개발을 돕고 있다.

김성춘 광주신세계 사원대표는 “광주신세계가 헌혈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아 대한적십자사 표창을 수상하게 돼 영광스럽다”며 “지역민이 보내주시는 관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헌혈 등 지역에 도움이 되는 광주신세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나다운 기자**



광주 무등도서관, ‘운영 우수’ 문체부장관상

광주시립무등도서관은 지난 16일 강원 하이원리조트에서 열린 ‘제61회 전국도서관대회’에서 ‘2024년 도서관 운영 유공 우수도서관’으로 선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사진)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 운영 유공 포상’은 매년 전국 1만 5000여개 도서관의 서비스, 독서 인프라 확충 실적을 평가해 우수도서관을 발굴하고 포상한다. 시립무등도서관은 광역 대표도서관으로 다양한 도서관 정책 수립, 지역 도서관 발전과 상생을 위한 기반 마련, 중국 광주우도서관·미국대사관과 다양한 국제 교류·협력을 통해 도서관서비스 품질 제고와 다양성 확대 등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희망도서 바로대출서비스, 도서관 문화마당, 빛고를 책임는 시민 선정, 세계 책의 날 행사, 시민참여형 특화프로그램 등 다양한 독서진흥사업을 추진해 시민에게 양질의 독서문화생활 여건을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권범 기자**



전남자원봉사센터, ‘제4회 자원봉사 박람회’

전남지역 자원봉사자들이 온기 나눔을 통해 더 따뜻한 전남을 만들기로 다짐했다. (사진)

전남도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6일 광양실내체육관에서 ‘제4회 전남도 자원봉사 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날 도민과 자원봉사자들은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행사는 박창환 전남도 경제부지사,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김기홍 광양부시장, 지역 대표 기관, 단체, 도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체험부스 운영, 식전공연, 활동영상, 우수사례 발표, 자원봉사 장기자랑, 도전 골든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체험 부스에서는 시군 자원봉사센터, 기업, 기관, 대학교 등 총 30개 유관기관이 참여해 △플로링 △장애이해체험 △심폐소생술 △재난 심리상담 △스포츠재활 △방역소독 △다문화체험 △탄소중립을 위한 업사이클링 만들기 등이 진행됐다. **오지현 기자**



김이강 서구청장, 청소년 도박 근절 챌린지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은 지난 16일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 사이버 도박, 절대 이길 수 없는 사기 범죄입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청소년 도박 근절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사진)

지난 3월부터 서울경찰청 주관으로 시작된 이번 챌린지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불법 사이버 도박의 위험성을 알리고 사회적 관심과 도박 근절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범사회적 캠페인이다. 챌린지는 지목을 받은 당사자가 도박 근절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담은 사진을 SNS나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이버 도박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함께 근절해 나가야 한다”며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지원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상이 기자**



광주 서구-소진공, 소상공인 역량 강화 협약

광주 서구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호남지역본부와 지난 16일 서구청 이음홀에서 서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이날 협약은 서구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서구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과 협력 업무를 담당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창업·성장, 재기 지원과 같은 공단의 주요 사업과 소상공인을 연계하기로 약속했다.

또 양 기관은 △혁신형 소상공인 성장지원 △소상공인 폐업 및 재기지원 사업 △전통시장 및 상권 활성화 지원 분야 △소상공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분야 △ESG경영 업무협력 가능 분야에 대해 협력하며 소상공인이 직면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힘을 모을 예정이다. **정상이 기자**

BTS 제이홉 전역... 마중온 진과 포옹 “응원 감사”

방탄소년단(BTS) 제이홉(정호석·사진)이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했다. 제이홉은 17일 오전 10시5분께 강원 원주제36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전역 신고를 하고 부대를 나왔다.

그는 작년 4월 육군 현역으로 입대해 조교로 복무해 왔다.

이날 전역 현장엔 방탄소년단 멤버 중 가장 먼저 전역한 진(김석진)이 마중을 나왔으며 진은 밝게 웃는 제이홉과 포옹하며 전역을 축하했다. 준비해온 대형 꽃다발도 선물했다.

제이홉은 부대 앞에서 대기 중이던 팬덤과 취재진에게 “충성!”이라고 외치며 사회 복귀 신고를 하고 “군 복무 동안 나라를 지키기 위한 많은 국군장병들의 노고와 헌신을 느꼈다. 우리 국민분들께서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부대가 위치한 원주 시민에 대한 고마움 표시도 잊지 않았다.

제이홉은 “지난 1년6개월 동안 임무를 수행하면서 원주 시민을 많이 만났다”며 “장병들에게 인사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다. 시민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동이었다. 이 뜨거운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몽글해 하기도 했다.

이어 “큰 응원과 성원 그리고 사랑을 주셔서 감사하다. 건강하게 잘 전역했다. 충성!”이라며 거듭 감사함을 표했다.

진은 제이홉이 얘기하는 동안 옆에서 취재진의 마이크를 대신 들어주기



도 했다.

팬들은 이날 제이홉의 전역을 다양한 이벤트로 축하했다.

축하 배너를 곳곳에 걸고, 하늘에는 에드벌룬까지 띄웠다. 국내 팬뿐 아니라 일본 등 아시아, 브라질 등 남미 등 지에서도 팬들이 입국해 축하했다.

방탄소년단 팬덤 ‘아미’는 전역을 기념하는 ‘제이홉쇼’를 조성하는 축하에 동참했다.

멤버들도 제이홉의 전역을 축하하고 나섰다.

정국은 팬커뮤니티 위버스에 “먼저 갔다 온 만큼 못다 한 거 행복하게 하시길. 고생했다”고 썼다.

제이홉은 집에 이어 방탄소년단 일급 멤버 중 두 번째로 군 복무를 마쳤으며 곧 솔로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방탄소년단 완전체 활동 재개는 모든 멤버들이 전역하는 내년 하반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곽지혜 기자**